



한-페루,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

- 「한-페루 핵심광물 협력 MOU」 체결

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참석 이후 진행된 페루 공식방문(11.16(토), 리마)에서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「한-페루 핵심광물 협력 MOU」를 체결하였다.

페루는 중남미 내 한국과 ‘포괄적 전략 동반자’ 관계를 수립(‘12년)한 유일한 국가로, `11년 한-페루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약 2배 증가\*하는 등 경제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. 작년 11월에는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-페루 정상회담(샌프란시스코, `23.11.16)을 갖고, 방산, 공급망,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. 이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(MOU)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.

* 한-페루 교역 규모 : (‘10년^{FTA체결 이전}) 19.8억불 → (‘23년^{FTA 체결 이후}) 36.3억불

페루는 구리(생산량 세계 2위), 아연(생산량 세계 2위) 등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으로,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.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방지 공적 개발원조(ODA) 사업을 위주로 협력해왔으나, 이번 양해각서(MOU) 체결로 광해방지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, 공동탐사 및 개발,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.

* 한국 對페루 광산물 수입 비중 및 순위(‘23년) : 구리 12%(4위), 아연 16%(3위)

페루 주요 광물 생산량(23년) : 구리 (세계 2위(12%), 260만톤), 아연 (세계 2위(11.5%), 140만톤)

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양해각서(MOU)에 기반하여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	책임자	팀 장	윤용석 (044-203-5259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훈 (044-203-5258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	책임자	과 장	류동희 (044-203-5630)
		담당자	사무관	조석인 (044-203-5634)